Amber

INT. 침실 - 아침

재인(29), 한복으로 갈아입는다. 먼저 하얀 속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검정 저고리, 검정 치마 순으로 입는다. 머리를 빗어 낮은 당고머리로 묶고선 하얀 리본 모양 머리핀을 꼽는다.

Note. 대화는 한국어로 이어지며 영어로 자막이 나온다.

어린 재인 (V.O.)
(어린 재인의 목소리)
아빠, 잘 지내고 있지요? 난 오늘부터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어 이름도 지었고, 제인. 맘에 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끓여준 전복죽 먹고 싶다... 아빠하고 할머니 둘 다 너무 보고 싶어요. 저 보러 올꺼지요? 재인

INT. 절 - 오후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는 동안 재인은 가만히 서있다. 뒤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있다. 재인, 옆에 서있는 아줌마(60대)에게 말을 건다.

재인
(강한 영어 억양이 남아있는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한다)
오새요?

아줌마
아마 안 올거다...ㅁ

재인,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뒤쪽에서 울고 있는 소영(50대)를 바라본다. 그녀는 혼자 앉아 있다. 사람들은 방을 나설 때 그녀를 마치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빙 둘러 간다.

EXT. 부두 - 오후

재인, 부두를 향해 걷는다. 머리에는 아직 하얀 리본을 단 채 하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다. 어부가 재인을 발견한다.

어부
너 찬우 딸내미지?

재인
네.

어부, 재인를 열심히 바라본다.

어부
아주 아빠를 꼭 닮았구나.

재인 미소 짓는다.

어부
마지막에 어찌 됐건, 너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고기잡으러 같이 나가곤 했는데. (침묵) 그건 그렇고, 할머니 찾는 거니? 저기 계신다.

바다 쪽을 가리킨다. 재인, 감사 인사를 하고 해변을 향해 걷는다.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EXT. 바다 - 오후

해녀 할머니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다. 몇명은 부유에 몸을 기대 떠 있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다시 바닷속으로 잠수한다. 할머니(76), 물에서 올라와 망사에 전복을 넣는다. 다시 물속으로 사라진다.

INT. 침실 - 저녁

재인, 휴대폰을 귀에 대고 앉아있다. 집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을 내다본 후 문을 닫는다.

재인
(영어로)
여보세요? 케이스, 드디어.

재인, 즉시 긴장을 푼다.

재인 (CONT'D)재인이도 왔다. 네 딸 말이야.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딸.
(영어로)
너 목소리 듣기만 해도 너무 좋다... 응, 여보세요? 신호가 나빠서...

재인, 신호가 잘 잡히는 곳을 찾기 위해 방 안을 돌아다닌다.

재인 (CONT'D)
(영어로)
응, 괜찮아... 그냥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겟어... 나도 니가있었으면 더 편하지...이런 건 니가 훨씬더 잘 하잖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재인 (CONT'D)
(영어로 속삭인다)
미안 나 지금 가봐야돼! 사랑해.

재인 통화를 끊고 밖으로 서둘러 나간다.

INT. 거실 - 저녁

할머니, 앉아서 초록색 장화를 벗는다.

재인
할머니! 다녀 오셨어요? -

할머니
밥은 먹었냐?

재인이
아니요.

할머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INT. 부엌 -저녁

할머니, 야채 손질을 하고 멸치를 삶기 시작한다. 재인 멋쩍은 듯이 문가에 서있다.

재인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할머니
요리는 할 줄 아니?

재인
조금은요...

할머니
나중에 남편은 어떻게 먹이려 그러냐?

할머니가 재인한테 양파와 칼, 도마를 주고 냉장고 쪽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재인, 양파를 큰 조각으로 엉성하게 대충 잘라낸다.

할머니
얘! 이게 뭐냐? 그냥 밖에 가서 쉬어.

INT. 거실 - 저녁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하다. 매운탕이 가운데에 있고 반찬들이 그 옆을 둘러싸고 있다. 양쪽으로 밥 한 공기가 놓여 있다. 재인, 식탁에 앉는다. 할머니, 젓가락을 들고 와 앉는다.

재인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끄덕이곤 밥그릇에 물을 부어 맨밥과 김치만 먹는다. 침묵 속에 진행되는 식사. 개가 짖는다.

할머니
니 애비가 제 밥 안 먹였대니? 찬우야, 찬우야!
찬-

재인, 당황스런 표정이다. 할머니,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그러고선 조용히 일어나 강아지 밥을 주러 간다.

INT. 침실 - 저녁

재인, 어둠 속에 눈을 뜬채 누워있다. 계속 뒤척인다. 다른 방에선 할머니가 기도를 끝마치는 소리가 들리고는, 시골의 정적만 남는다- 바람소리와 파도 소리. 갑자기 침묵이 깨지고 할머니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린다.

INT. 거실 - 아침

재인, 문을 열자 밥상이 차려진 식탁이 보인다. 고개를 들자 소영씨가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다. 꽃과 빼빼로를 들고 있다. 눈이 마주친다. 재인,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지만 소영씨는 서둘러 뒤돌아 거리를 걷는다.

INT. PC 방 - 아침

PC 방은 비어있다 - 주인 없이 줄 맞춰 늘어선 컴퓨터들. 재인은 방 가운데 있는 컴퓨터 앞에 헤드셋을 끼고 앉아있다.

재인
(영어로)
위 아래... 위 아래... 손 똑바로 했어! 바!

재인, 연필을 들고 양파 써는 손 동작을 흉내낸다.

재인 (CONT'D)
(영어로)
케이스, 나 이제 알겠어!... 몰라 할머니가 양파 하고 남편이 영결 돘데데...(웃는다) 응, 난 괜
(MORE)

(CONTINUED)

(cont'd)
찮아... 이상한게 사실 슬프진 않아... 알아,
근데 그냥 훨씬 오래 전에 아빠를 이미 잃은 기분
이야...

EXT. 부두 - 아침

재인, 해변가 바위에 앉아 해녀 할머니 배를 타고 부두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본다.

INT. 거실 - 저녁

재인, 바닥에 앉아 칼질하는 손동작을 연습한다. 할머니가 들어온다. 재인, 멈추고 똑바로 앉는다.

재인
할머니! 다녀 오셨어요? -

할머니는 초록색 장화를 벗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간다. 커다란 검정 비닐 봉투를 들고 있다.

INT. 부엌 - 저녁

할머니가 전복을 손질하기 시작한다. 재인, 들어온다.

할머니
아직 전복 좋아하겠지?

할머니, 양파를 썰기 시작한다. 재인, 다가와 할머니에게서 칼을 가져간다.

할머니
뭐해? 가서 쉬어.

재인
제가 할게요.

재인, 양파를 썰기 시작한다 - 전보다 깔끔하고 작은 조각들. 할머니가 어깨 너머로 보고는 살짝 웃는다.

할머니
연습했어?

재인, 칼질을 계속 하고 웃음를 숨기려 한다.

INT. 거실 -저녁

재인과 할머니 마루에 앉아있다. 시골의 정적만이 흐르고. 할머니는 배를 깎는다. 재인 칼을 가져간다.

할머니
이제 양파 썰 줄 안다고, 으이그 잘란척은...?

재인, 웃으며 배를 깎기 시작한다. 할머니 웃는다.

할머니 (CONT'D)
니애비 닮아서 고집은 쎄가지구...

할머니, 재인을 바라보더니 마당쪽을 바라본다. 침묵.

할머니 (CONT'D)
보고싶네...

할머니, 주위를 둘러본다.

할머니 (CONT'D)
이런 밤에는 니 애비가 배를 깎고 그저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했는데.

재인
(망설이다)
제 얘기도 했나요?

할머니, 잠시 멈추고 재인을 바라본다.

할머니
걘 항상 널 기다렸어. 문앞에서, 전화 앞에서, 우체국에서...

재인, 배 깎기를 멈추고 올려다 본다.

재인
제 편지를 읽었어요?

할머니
걘 네 편지를 어라나 애꼈는데. 읽고 또 읽고...

재인, 침묵하고 마당쪽을 바라본다.

INT. PC 방 - 오후

재인, 헤드셋을 끼고 같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재인
(영어로)
케이스, 나 여기 좀 더 오래 있을 것 같아...
응, 난 괜찮아... 사실 여기가 조금 편해지기 시
작했어... 할머니에게 얘기하려고... 응, 확실
해... 좋은 때라는 건 없어. 난 더 못 기다리겠
어...

EXT. 부두 - 오후

재인,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다. 초조하게 서성인다. 해가 진다. 해녀 할머니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고, 배에서 내려 부두로 올라온다. 재인 곁으로 몰려든다.

할머니 1
재인아! 너 너무 컸다!

할머니 2
아빠를 쏙 빼닮았네.

재인,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
재인아? 여기서 뭐해?

재인
할머니 집에 같이 가려구요

할머니 1
어머, 재인이 미국 사람 다 됐네! 너무 멋지다

할머니 2
잘생긴 미국 남자친구도 있겠다, 그지?

해녀 할머니들 웃으며 걸어간다. 재인은 할머니와 함께 부두를 걷는다. 할머니가 짐 드는 것을 도와드린다. 소영씨 저 앞 해변 길에서 걸음을 재촉한다.

재인
할머니, 저 분은 누구에요?

할머니
(한숨을 쉰다)
이씨댁...

할머니, 잠시 멈추고 재인을 바라본다.

할머니 (CONT'D)
니 아버지 외로웠다.

할머니, 다시 걷기 시작한다. 재인, 소영씨를 바라본다.

EXT. 거리 - 오후

재인과 할머니, 침묵을 지키며 걷는다. 재인, 계속 할머니 쪽을 흘낏 본다. 마침내 말을 꺼낸다.

재인
할머니...

할머니, 계속 걷는다.

재인 (CONT'D)
저기...사실 말하고 싶은게 있는데요...미국에... 사람이 있는데...

할머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앞에 무언가를 바라본다. 소영씨가 꽃과 빼빼로를 들고 절로 들어간다. 할머니, 뒤를 쫓는다.

INT. 절 - 오후

사진과 유골함이 놓인 선반이 있다. 소영씨는 찬우의 사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서있다. 할머니와 재인은 멀리서 지켜본다. 소영씨,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울기 시작한다.

할머니가 들어오고 재인이 뒤따라 들어온다. 소영씨, 고개를 들더니 곧바로 인사하기 위해 일어난다.

소영
죄송해요. 나갈게요.

소영씨 나가기 위해 물건들을 챙긴다. 할머니 놓여있는 꽃하고 빼빼로를 바라본다.

할머니
(조용히)
찬우가 항상 빼빼로를 좋아하긴 했지? 아주 어렸을 적에도...

소영씨, 신발을 신다가 멈추고선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본다. 자신을 향한 말인지 확실하지 않다.

할머니, 찬우의 사진을 바라본다. 그러고선 줄지어 있는 다른 유골함들이 담긴 서랍장을 바라본다. 혀를 차고선 고개를 젓는다.

할머니, 갑자기 찬우의 서랍장을 열더니 유골함을 꺼내 밖으로 나간다.

EXT. 거리 - 오후

재인, 할머니를 따라 바다를 향해 거리를 내려간다. 소영씨는 머뭇거리다 뒤를 따른다.

재인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에요! 그렇게 아빠들고 가면 안되요!

할머니, 걸음을 재촉한다. 재인, 소영씨, 뒤를 따른다.

EXT. 절벽 - 오후

할머니, 절벽 위에 서있다. 유골함을 앞에 들고 눈을 감아 기도한다. 따라잡은 재인, 상황을 알아차리고 할머니를 따라 눈을 감는다. 소영씨는 뒤에 서있다.

할머니, 유골함을 열더니 바닷속으로 재를 뿌린다. 바다를 향해 아래를 바라본다.

할머니
찬우야, 오래 걸려서 미안해. 이제 편히 쉬어. 그만 고생하고.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재인,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는다. 할머니는, 재인의 손에 다시 손을 포개어 얹는다.

할머니 (CONT'D)
재인이도 왔다. 니딸... 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딸.

할머니, 깊은 한숨을 쉰다.

할머니 (CONT'D)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할머니, 뒤를 돌아보더니 소영씨에게 오라고 손짓한다.

할머니 (CONT'D)
제대로 인사하자.

세 여자는 한 줄로 서서 바다를 향해 절한다 - 큰 절 두번과 목례 한 번.

INT. 침실 - 저녁

재인, 침실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있다. 서랍장과 옷장을 따라 손

끝으로 느껴본다. 서랍장과 옷장을 열어 아버지의 옷들과 소지품을 살펴본다. 자켓을 들어서 냄새를 맡는다. 서류뭉치, 오래된 사진, 토끼 인형을 꺼낸다. 재인, 미소 짓는다.

서랍장 맨 밑에서 작은 양철 상자를 발견한다. 재인, 열어본다. 어렸을 적 붙였던 편지들을 발견한다. 그중 하나를 읽는다:

아빠, 잘 지내고 있지요? 난 오늘부터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재인, 결국 울음을 터뜨린다.

EXT. 거실 - 이른 아침

아직 밖은 어둡다. 할머니는 초록색 장화를 신고 있다. 재인, 츄리닝 자켓에 청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간다.

할머니
왜 벌써 일어났어?

EXT. 배 안 - 아침

재인, 다른 해녀 할머니들이들과 함께 배에 앉아 있다.

재인 (V.O.)
(영어로)
아빠,이제 다시 바다에 와서 좋으시죠?

목적지에 도착하자 해녀 할머니들, 한 명씩 물 속으로 뛰어든다.

재인 (V.O.)
(영어로)
처음에는 할머니가 뭘 하시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되요. 아빠가 계실 곳은 여기에요.

할머니, 돌아보고는 재인과 눈 맞춘다. 재인, 먼저 가시라고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 오리발과 잠수 마스크를 끼고 물속으로 뛰어든다. 재인, 할머니가 다른 해녀 할머니들과 부유에서 만나는 것을 지켜본다.

재인 (V.O.)
(영어로)
이씨 아줌마 만났어요. 좋으신 분 같아요. 저한테 그 분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아버지가 외로웠대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힘드셨죠? 그래도 누군가를 찾았다니 다행이에요.

재인, 자켓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낸다. 편지를 쥐더니 물 위로 떨어뜨린다. 편지가 떠가는 것을 바라본다.

다시 자켓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더니 휴대폰을 꺼낸다. 배경화면을 바라보며 웃고 화면을 만진다 - 사진 속에는 재인과 금발 여자가 서로 껴안고 있다.

재인 (V.O.)
(영어로)
저도 미국에서 외로웠어요. 케이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케이시랑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용기를 내서 좀 더 일찍 아빠한태 애기했을껄. 아빠가 저의 그런 모습을 알았으면...

재인, 휴대폰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자켓을 벗는다. 밑에는 잠수복을 입고 있다. 오리발과 잠수 마스크를 낀다. 물속으로 들어가 부유로 향한다.

재인 (V.O.)
(영어로)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안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마치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던 것도 같고... 하지만 아빠도 제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셨겠죠. 할머니에게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재인, 잠수한다. 둘러보자 다른 해녀 할머니들이 잠수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래를 바라보고는 푸르른 짙은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재인 (V.O.)
(영어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올께요. 보고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재인이가.